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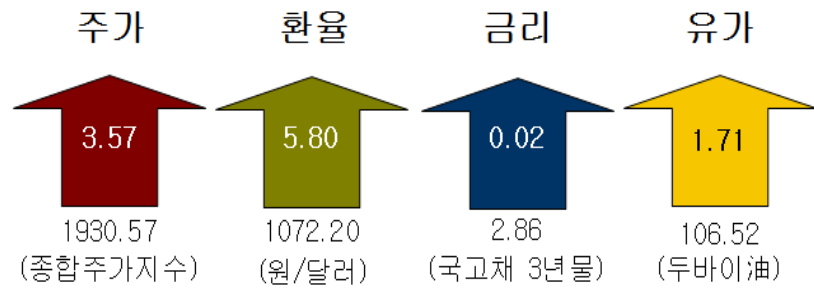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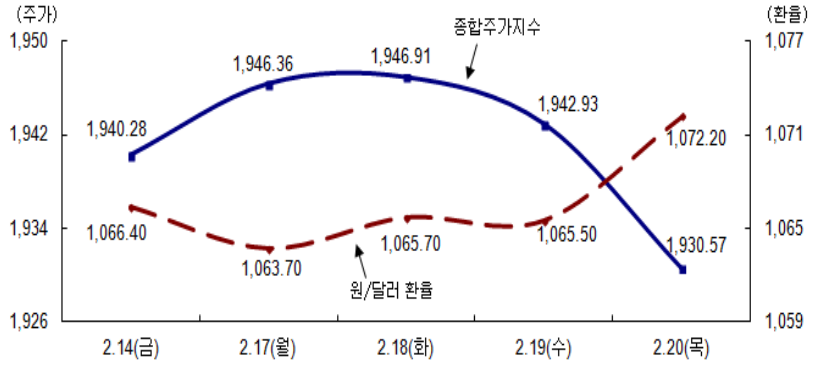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조건

週間 主要 經濟 指標 (2.14~2.20)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 주요 경제 현안 1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조건 1
-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산업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산업연구본부 : 오준범 연구원(2072-6247, jbdevil@hri.co.kr)
 주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백다미 선임연구위원 (2072-6239, dm100@hri.co.kr)

□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조건

■ 개요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폐막됨에 따라 차기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란 대회를 통한 국가 이미지의 제고, 국민의 결속 및 자긍심 고취, 동계 스포츠 경기력의 향상, 경제적인 이익 창출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 중에서 본 보고서는 경제적인 이익 창출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서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들중 1998년 나가노(일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미국), 2006년 토리노(이탈리아), 2010년 밴쿠버(캐나다) 대회의 올림픽 관련 주요 지출과 수입 및 대회 전후의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경제 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 지를 모색해 보았다.

■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지출과 수입

동계올림픽 대회 전후의 주요 지출과 수입을 보면 ① (대회 이전의 투자 비용) 동계올림픽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투자의 비용, ② (대회 기간 중 대회운영수지) 동계올림픽 기간중에 발생하는 대회운영지출(인건비, 시설 운영비, 교통비, 개막식 및 폐막식 비용 등)과 대회운영수입(스폰서십, 티켓판매, 상표권 수익 및 IOC와 중앙정부의 지원금)의 공식적인 대회운영수지, ③ (대회 이후의 시설유지비 및 관광수입) 동계올림픽 이후의 고정투자시설의 유지비 및 관광 수입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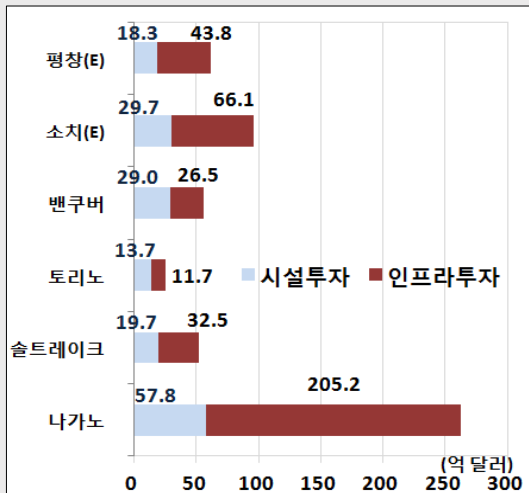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지출과 수입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첫째, 나가노올림픽은 시설 및 인프라에 대한 과잉투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가노 올림픽의 시설 투자 규모는 57.8억 달러(2013년 미 달러화 기준)이며 인프라 투자 규모는 205.2억 달러로 이후 개최지들의 투자 규모의 평균 5배에 달하고 있다.

둘째,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회운영수지는 대부분 균형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대회운영수지가 개최 당해연도에 주로 발생하고 IOC가 일정 부분의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대회운영지출 규모가 나가노올림픽 이후 점증하고 있는 점과 기존 계획보다 실제 지출이 크게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평창 올림픽의 지출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대회 이후 관광객 유입규모도 솔트레이크는 증가하는 반면 나가노는 큰 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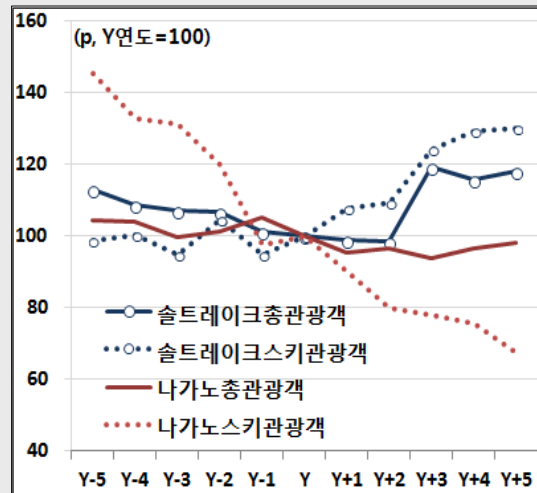
으로 감소하였다. 올림픽 개최연도의 해당 지역의 전체 관광객수를 100으로 보았을 경우, 솔트레이크는 대회 5년전 113.0p에서 대회개최 5년 후에는 118.2p를 기록한 반면 나가노는 같은 기간 104.2p에서 97.9p로 하락하였다. 한편 지역으로 유입되는 스키관광객수 지수(대회개최연도=100)도 솔트레이크는 대회 5년전 98.7p에서 대회개최 5년 후에는 130.0p로 상승한 반면 나가노는 같은 기간 145.1p에서 67.5p로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90년대 이후 지속된 내수 불황의 여파로 일본 내 스키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나가노 대회 개최연도인 1998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스키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시설 및 인프라 투자(2013년 미달러화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각국 올림픽대회조직 위원회 자료를 이용한 계산).

<대회 이후 나가노 및 솔트레이크 관광객수(개최연도 Y=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유타주관광청 및 나가노현관광부 자료를 이용한 계산).

■ 나가노와 솔트레이크의 대회 추진 정책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중 일반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공 사례를 솔트레이크 대회로 실패 사례를 나가노 대회로 들고 있다. 우선 솔트레이크의 경우 **첫째,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올림픽 경기를 위한 추가 지출을 최소화하였다.** 솔트레이크시티는 올림픽 경기 운영을 위해 총 11개의 경기장을 운영했으나 이 중 신축 시설은 유타올림픽오벨, 유타올림픽파크, 솔저할로우의 3개 시설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8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고 올림픽 빌리지를 신축하는 대신 유타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는 등 건설 지출을 최소화하였다. **둘째, 사후 시설 활용을 위해 스포츠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실현하였다.** 올림픽 사후시설

활용을 위해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본부를 유치했다. 또한 지역 내 스포츠 의학 특화 병원을 육성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고도차를 활용해 체력강화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추가적인 강점을 내세워 스포츠팀을 적극 유치하였다. **셋째, 스포츠 체험 및 관람객 유치 효과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타올림픽파크의 스키점프대 시설 아래 여름레포츠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스키장 시설과 함께 연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일반인도 봅슬레이, 스켈레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활용하는 등 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사후 시설의 스포츠산업과의 연계로 스포츠 경기 관람객 유치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 관광 산업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나가노는 첫째, 올림픽 운영을 위한 경기장 시설을 신축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간접자본 또한 무리하게 투자하였다.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총 5개 실내경기장 중 컬링 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경기장을 모두 신축하였고, 개·폐회식장 및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경기를 위한 시설도 새로 건설하였다. 또한 경기 및 운영 시설, 대회 운영비 등 직접 관련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신간선과 고속도로, 공항 등 SOC 사업으로 5년간 약 14년치 규모의 SOC 사업비용을 선행 지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둘째, 사후 시설 대부분이 지역 주민 수요에 한정되어 수익 창출 효과가 미진하였다.**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은 선수 연습용 혹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어 수익 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 **셋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나가노만의 관광 자원 개발에 실패하여 지역 관광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였다.** 나가노의 관광 자원으로 올림픽 유산 견학, 일본 3대 사찰인 젠코지 등이 손꼽히지만 사찰 관광의 가치가 크지 않고 올림픽 유산의 단순 관람만으로는 관광객이 나가노에 장기 체류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다. 또한 나가노는 빙상 시설만을 보유하고 있어 스키장과 같이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 시사점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성공한 경제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대회준비 비용의 증액 억제)** 대회 준비 비용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엄격한 회계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고정시설 투자의 최소화)** 개최 이후 활용도가 불확실한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설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사후 시설 활용도의 제고)** 지금부터 대회 이후 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창설하고 현실적인 로드맵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넷째, (관광객 유입 극대화)**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상품개발 등을 통해 동계 올림픽 개최국으로써의 인지도 상승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1. 개 요

-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가 ‘경제 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한 필요성 대두
 -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폐막됨에 따라 차기 ‘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 제22회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2014년 2월 7일 ~ 2014년 2월 23일)이 폐막되고 제23회 대회는 4년만인 2018년 평창 (2018년 2월 9일 ~ 2018년 2월 25일)에서 개최될 예정임
 - 올림픽 대회 개최의 성공 여부에 대해 유·무형의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적인 이익 창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춤
 -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란 국가 이미지의 제고, 국민의 결속 및 자긍심 고취, 동계 스포츠 경기력의 향상, 경제적인 이익 창출 등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적인 이익 창출 측면에 초점을 맞춤
 - 현대경제연구원(2011년)은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한 유·무형의 총 경제적 효과(지출비용을 고려하지 않음)를 64조 9,000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음¹⁾²⁾
 -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기존 보고서와 달리 올림픽 대회 준비 단계부터 대회 이후까지 대회와 연관된 주요 지출과 수입을 살펴보는 점에서 차이를 가짐
- 동계올림픽의 특성상 사후 높은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어 최근 동계 올림픽 개최지들의 지출과 수입을 살펴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경제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해 보았음

1) 현대경제연구원(2011),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현안과 과제.

2) 현대경제연구원(2011)에서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가 IOC에 제출한 내역을 기준으로 추정되었음. 최근까지 당시 발표된 사업 내역과 금액에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정치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판단됨.

-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비용 측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동계올림픽은 그 특성상의 제약으로 대부분의 역대 개최지들이 대회 이후의 비용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임
 - 실제 동계 올림픽 개최지들은 대부분 개최국의 인구 및 경제 중심지가 아닌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개최³⁾되어 대회를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비용이 높은 편임
 - 또한 상대적으로 경기 종목의 대중화 정도가 낮고, 상당수 시설의 사계절 활용이 어려워 사후 시설의 유지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적자 대회’가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최근 동계 올림픽 개최국들의 지출과 수입의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경제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해 보았음
 -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들중 1998년 나가노(일본),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미국), 2006년 토리노(이탈리아), 2010년 밴쿠버(캐나다) 대회의 올림픽 관련 주요 지출과 수입 및 대회 전후의 정책들을 살펴봄
 - 나아가 이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경제 올림픽으로 성공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 지를 모색해 봄

< 최근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개요 >

회차	개최 연도	개최도시(개최국가)	개최기간	참가국(국)	참가자수 (명)	개최도시 인구(만명)
18	1998	나가노(일본)	2.7 ~ 2.22	72	2,177	36.0
19	2002	솔트레이크시티(미국)	2.8 ~ 2.24	77	2,399	18.0(130)
20	2006	토리노(이탈리아)	2.10 ~ 2.26	80	2,508	90.8(170)
21	2010	밴쿠버(캐나다)	2.12 ~ 2.28	82	2,566	57.8(220)
22	2014	소치(러시아)	2.7 ~ 2.23	88	2,800	32.8
23	2018	평창(대한민국)	2.9 ~ 2.25	—	—	4.4

자료 :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소치올림픽조직위원회.

주 : 개최도시인구의 괄호안은 광역인구를 뜻함.

3) 【부록 1】 『역대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 를 참조.

2.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지출과 수입

○ 동계올림픽 대회 전후 대회 관련 주요 지출 및 수입의 개요

- (대회 이전) 대회를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투자와 충당을 위한 재원
 - 투자 비용: 시설건설 (경기장, 숙박시설, 미디어 빌리지 등) 및 인프라건설 (교통, 전력,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구축) 투자를 의미함
 - 투자 재원: 시설건설 및 인프라건설 투자의 재원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자본 등4)
 - 경제적 효과: 관광객 유입의 소비지출 및 시설건설 및 인프라건설 투자에 따르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등이 있음

- (대회 기간 중) 동계올림픽 기간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OCOG, Organizing Committees for the Olympic Games의 공식적인 대회운영수지를 의미
 - 대회운영지출: 인건비, 개최시설 운영비, 숙박시설 운영비, 교통비, 개막식 및 폐막식 비용, 관리비가 주된 비용으로 계산
 - 대회운영수입: 대회기간 동안 발생하는 스폰서십, 티켓판매, 상표권 수익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주된 수입
 - 경제적 효과: 관광객 유입의 소비지출 및 대회운영지출에 따르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등이 있음

- (대회 이후) 동계올림픽 이후의 주된 지출은 고정투자시설의 유지비이며, 주된 경제적 수입은 관광객유입에 따르는 지출
 - 사후 비용: 올림픽 관련 시설(경기장, 숙박시설, 미디어 빌리지 등)의 사후 유지 비용
 - 사후 수입: 지역주민, 선수의 시설이용료 등이 있으나 대체로 큰 비중은 차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경제적 효과: 인지도 상승에 따르는 관광객 유입의 소비지출에 따르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등이 있음

4) 통상 경기시설, 교통 관련 인프라, 숙박시설 등은 개최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민간 기업으로부터 조달.

<동계올림픽의 주요 비용 및 편익 내용>

	동계올림픽대회 이전	동계올림픽대회 중	동계올림픽대회 이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건설 비용 ▪ 인프라 건설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운영 지출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유지 및 전환 비용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지방 정부 투자 ▪ 민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운영 수입 (IOC지원, 정부보조, 입장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이용료 등
경제적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지출 유발효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 시설투자 유발효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지출 유발효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 대회 운영 지출 유발효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지출 유발효과 (생산,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경제외적 효과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국 기업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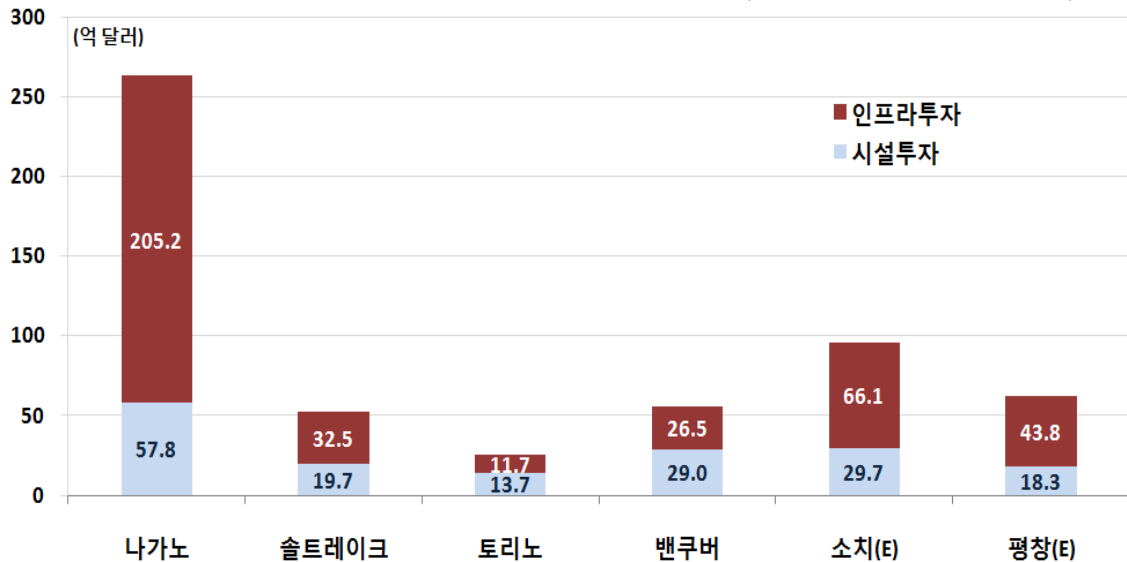
- 주 : 1) 본 보고서에서는 ① 동계올림픽대회 이전 시설 및 인프라 투자, ② 대회 중 지출/수입, ③ 동계올림픽대회 이후의 경제적효과(관광객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
 2) 동계올림픽대회 이후의 경제적효과는 관광객수 및 시설운영수지, 정부 및 주민들의 채무 부담으로 변화)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자료 이용의 한계상 관광객수 변화만을 분석함.
 3) 현대경제연구원(2011) 보고서는 모든 기간의 경제적효과 및 경제외적효과만을 추정.

○ (대회 이전 시설 및 인프라 투자) 시설 및 인프라 투자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 역대 대회는 나가노동계올림픽으로 이후 대회들과 큰 규모의 격차를 보일 정도로 과도한 투자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

- 시설 및 인프라 투자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 역대 대회는 나가노동계올림픽이며 그 규모는 이후 대회의 투자 규모의 평균 5배에 달함
 - 나가노올림픽의 시설 투자 규모는 57.8억 달러(2013년 미 달러화 기준)이며, 인프라 투자 규모는 205.2억 달러로 비교 대상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대회이후 최대 적자요인인 시설투자규모를 보아도 나가노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밴쿠버 29.0억달러, 솔트레이크 19.7억달러, 토리노 13.7억달러의 순
- 소치의 경우 계획상의 투자 비용이 솔트레이크 이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며, 평창은 기존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과도하지 않은 편

- 다만 역대 개최지들의 투자 비용이 계획을 넘어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치 및 평창의 실제 투자 비용은 당초 예산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⁵⁾
- 특히 러시아 정부가 소치올림픽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최대지출 기록이 갱신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됨⁶⁾

<최근 동계올림픽 개최국의 시설 및 인프라 투자(2013년 미달러화 기준)>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각국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주 : 1달러(1998)은 115엔, 1달러(2006)은 0.83유로, 1달러(2010)은 1150원으로 계산한 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하여 2013년 달러 가격 기준으로 계산.

○ (대회 중 대회운영수지) 올림픽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대회운영수지는 대부분 균형 수준을 유지

- 대회운영지출은 1998년 나가노올림픽에서 2010년 밴쿠버올림픽까지 점증하는 추세

- 대회운영지출은 1998년 나가노올림픽은 13.6억 달러(2013년 실질가치)이었으나 이후 상승 추세를 보여 2010년 밴쿠버올림픽은 18.8억 달러까지 상승함
- 소치 및 평창 올림픽의 경우 대회운영지출 비용이 낮은 편이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당초 계획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함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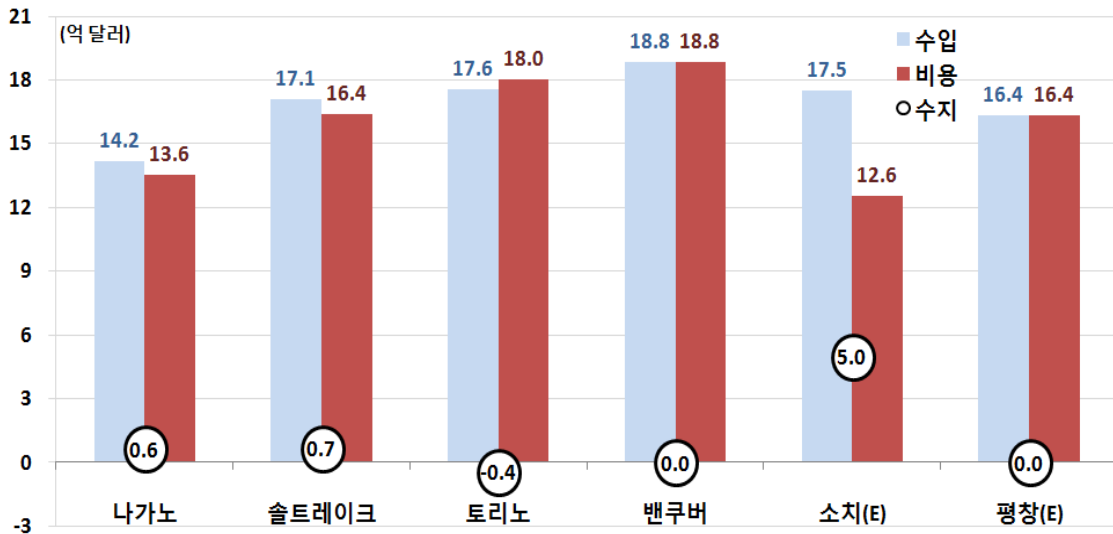
5) Flyvbjerg and Stewart(2012), Olympic Proportions: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Olympics 1960-2012, Saï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s.

6) Nemtsov와 Martynyuk의 분석에 따르면 대회관련사업비로 약 148억 달러, 인프라사업비로 352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

7) 【부록 2】 『올림픽대회 예산에 관한 연구』를 참조.

- 한편, 대회운영수입은 대체로 대회운영지출에 맞추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대회운영수지에서 대규모의 적자를 보는 경우는 없음
 - 대회운영수지의 경우에는 대회가 개최되는 당해 연도에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가 직접적으로 일정 부분의 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에 큰 적자를 보이는 경우는 없음
 - 나가노 및 솔트레이크시티의 경우 각각 2013년 미달러화 기준으로 600만 달러 및 7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또한 밴쿠버는 균형수지를 토리노는 4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최근 동계올림픽의 대회운영수지 비교 (2013년 미달러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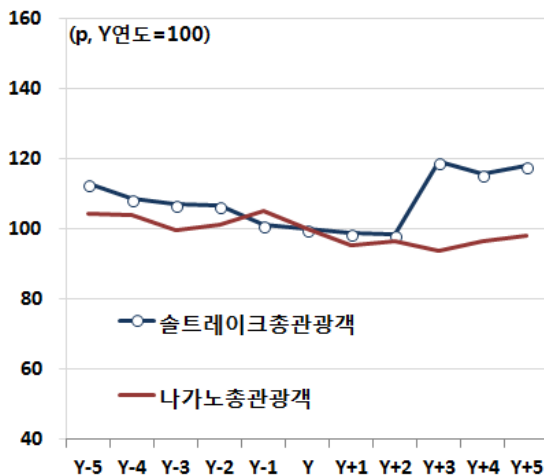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각국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계산).
 주 : 1달러(1998)은 115엔, 1달러(2006)은 0.83유로, 1달러(2010)은 1150원으로 계산한 후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이용하여 2013년 달러 가격 기준으로 계산.

- (대회 이후 관광객 유입)⁸⁾ 대회 개최 이후의 관광객 유입규모는 솔트레이크는 증가하는 반면 나가노는 감소 추세를 지속
- 대회 개최 전후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체관광객 동향을 보면 나가노는 소폭 감소하는 반면 솔트레이크는 2년후 급증
 - 대회 이후 개최 지역으로 유입되는 전체관광객수를 지수(대회개최연도=100p)로 산출할 경우, 솔트레이크는 대회 5년전 113.0p에서 대회개최 5년 후에는 118.2p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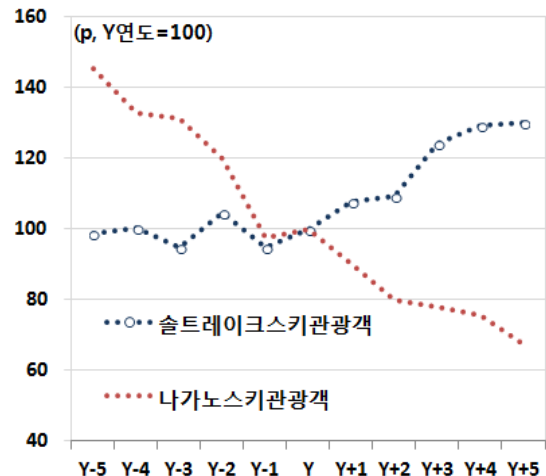
8) “대회 이후 시설운영수지 및 관광객 유입” 은 자료의 접근성 및 이용가능성의 한계로 나가노 및 솔트레이크 대회에 한정하여 분석.

- 반면 나가노는 대회 개최 이전인 1996년과 1997년에는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대회 5년전 104.2p에서 대회개최 5년 후에는 97.9p로 소폭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냄
- 대회 개최 전후 지역으로 유입되는 스키관광객 동향을 보면 나가노는 큰 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솔트레이크는 상승 추세를 유지
 - 대회 이후 지역으로 유입되는 스키관광객수를 지수 (대회개최연도=100)화하면, 솔트레이크는 대회 5년전 98.7p에서 대회개최 5년 후에는 130.0p를 기록함
 - 반면 나가노는 같은 기간 145.1p에서 67.5p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90년대 이후 지속된 내수 불황의 여파로 일본 내 스키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나가노 대회 개최연도인 1998년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스키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입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됨

<대회 이후 나가노 및 솔트레이크 전체관광객수 지수(개최연도=100)>



<대회 이후 나가노 및 솔트레이크 스키관광객수 지수(개최연도=100)>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유타주관광청 및 나가노현관광부 자료를 이용한 계산).

주 : 1) Y는 개최연도를 의미하며 나가노는 1998년, 솔트레이크는 2002년.

2) 전체관광객수는 솔트레이크는 항공승객인원 기준, 나가노는 모든 교통수단이용인원.

3. 나가노와 솔트레이크의 대회 추진 정책

○ (성공 도시: 솔트레이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올림픽 이후 관광 및 스포츠 산업 육성을 통해 사후 시설 활용 및 수익 창출에 성공

-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올림픽 경기를 위한 추가 지출을 최소화

- 솔트레이크시티는 올림픽 경기 운영을 위해 총 11개의 경기장을 운영했으나 이 중 올림픽 유치 이후 신축된 시설은 유타올림픽오벌, 유타올림픽파크, 솔저할로우의 3개 시설에 불과
- 나머지 8개 경기장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고 올림픽 빌리지를 신축하는 대신 유타대학교 기숙사를 활용하는 등 시설 건설에 따른 막대한 추가 지출을 최소화

- 사후 시설 활용을 위해 스포츠산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수익 창출 실현

- 올림픽 사후시설 활용을 위해 미국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본부를 유치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 강화
- 지역 내 스포츠 의학 특화 병원을 육성⁹⁾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발생하는 고도차를 활용해 체력강화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을 홍보하는 등 추가적인 강점을 내세워 스포츠팀을 적극 유치

- 스포츠 체험 및 관람객 유치 효과로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유타올림픽파크의 스키점프대 시설 아래 여름레포츠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 스키장 시설과 함께 연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 일반인도 봅슬레이, 스켈레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활용하는 등 올림픽 시설을 관광 자원으로 전환하는데 성공
- 또한 사후 시설의 스포츠산업과의 연계로 스포츠 경기 관람객 유치 효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 관광 산업에 일조했다는 평가

9) 미국 유타주의 TOSH(The Orthopedic Specialty Hospital)병원은 스포츠의학 및 트레이닝센터로 특화되어 솔트레이크시티의 프로 스포츠팀 유치에 기여.

- (실패 도시: 나가노) 올림픽 이후 지속적인 수익 창출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시설 투자가 재정 부담으로 전락
 - 올림픽 운영을 위한 경기장 시설을 신축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사회간접자본 또한 무리하게 투자
 - 올림픽 개최를 위해 필요한 총 5개 실내경기장 중 컬링 경기장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경기장을 모두 신축하였고, 개·폐회식장 및 스키점프와 크로스컨트리경기를 위한 시설도 신축
 - 또한 경기 및 운영 시설, 대회 운영비 등 직접 관련된 사업비 뿐만 아니라 신간선과 고속도로, 공항 등 SOC 사업으로 5년간 약 14년치 규모의 SOC 사업비용을 선행 지출한 것으로 평가
 - 사후 시설 대부분이 지역 주민 수요에 한정되어 수익 창출 효과 미진
 - 올림픽 스타디움은 현재 야구장으로, 올림픽 선수촌은 시영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기타 시설 역시 실내수영장, 종합체육관, 다목적 홀 등 대다수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
 - M웨이브, 스파이럴 TM, 스키점프대 등 일부 시설이 선수들의 경기 및 연습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 즉, 나가노의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은 선수 연습용 혹은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는데 그치고 있어 수익 창출 효과가 크지 않음
 -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나가노만의 관광 자원 개발에 실패하여 지역 관광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저해
 - 나가노의 관광 자원으로 올림픽 유산 견학, 일본 3대 사찰인 젠코지 등이 손꼽히지만 사찰 관광의 가치가 크지 않고 올림픽 유산의 단순 관람만으로는 관광객이 나가노에 장기 체류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려움
 - 또한 나가노는 빙상 시설만을 보유하고 있어 스키장과 같이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지속적인 방문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은 부족
 - 전반적으로 선행 투자된 도시 인프라를 이용해 관광 산업 등 나가노만의 특성화된 산업 육성에 실패하였으며 오히려 정비된 도로 인프라가 올림픽 관객을 타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

<나가노, 솔트레이크, 평창의 사후시설 이용(안)>

시설	나가노	솔트레이크	평창
개·폐회식장	야구장/운동공원 전환	기존 시설 이용	임시시설로 설치
스피드스케이팅(경)	시설유지 (경기 및 훈련시설)	시설유지 (경기 및 훈련시설)	컨벤션센터 전환
아이스하키A(경)	다목적 홀 전환	기존 시설 이용	원주시 이전 후 하키전용경기장
아이스하키B(경)	수영장 전환	기존 시설 이용	대학시설로 이용
피겨/쇼트트랙(경)	다목적 체육시설 전환	기존 시설 이용	다목적 홀 및 공공 아 이스링크로 이용
봅슬레이(경)	시설유지 (경기 및 훈련시설)	시설유지 (경기, 훈련 및 일반인 체험) 올림픽박물관 신설	시설유지(경기, 훈련 및 레저시설)
스키/스키점프(경)	시설유지 (경기, 훈련, 레저시설)		기존시설 이용
크로스컨트리(경)	시설유지 (경기 및 훈련시설)	레크리에이션과 훈련 시설 전환	기존시설 이용
알파인활강(경)	기존시설 이용	기존시설 이용	활강경기장만 신설 후 향후 레저시설로 개발
올림픽 빌리지	시영주택 전환	기존 시설 이용	리조트 숙박시설, 민 간주택으로 분양
미디어 빌리지	현영주택 전환	기존 시설 이용	리조트 숙박시설, 민 간주택으로 분양
미디어 센터	다목적 홀 전환	컨벤션센터 전환	방송아카데미 및 의 료·교육센터

자료 : 각국의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일본 나가노현,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경)은 경기장을 의미.

4. 시사점

- 평창 동계 올림픽 대회를 「성공한 경제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회준비 비용의 증액 억제’, ‘고정시설 투자의 최소화’, ‘사후 시설 활용도의 제고’, ‘관광객 유입 극대화’ 등에 주력해야 함

첫째, (대회준비 비용의 증액 억제) 대회 준비 비용의 무분별한 상승을 막기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엄격한 회계 통제가 필요하다.

- 역대 올림픽 개최지의 경우 대회를 준비하면서 초기 투자 계획상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1998년 나가노 올림픽 이후 2010년 밴쿠버 올림픽까지 4개의 동계올림픽의 경우 기존 계획대비 평균 62%의 추가 투자비용 증액이 발생함¹⁰⁾
- 대회를 준비하는 비용은 상당 부문 국민이 내는 세금의 확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발생할 경우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지자체 등 정부 기관의 엄격한 검증 과정이 필요함
- 특히, 만약 증액이 불가피할 경우 계획의 변경 내용과 의사 결정 과정을 국민과 언론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임

둘째, (고정시설 투자의 최소화) 개최 이후 활용도가 불확실한 고정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건설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동계올림픽 종목들은 하계올림픽과 달리 상당수가 대중화가 되어있지 않고 대부분 겨울 시즌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후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10) Flyvbjerg and Stewart(2012), Olympic Proportions: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Olympics 1960-2012, Saï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s.

- 이에 따라 역대 대회들의 경우 대회 개최 이후의 고정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가장 큰 재정 부담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경기장의 경우 쉽게 철거 가능한 공법을 사용하고 숙박시설은 임대 및 전용이 가능하도록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¹¹⁾

셋째, (사후 시설 활용도의 제고) 지금부터 대회 이후 시설 관리를 위한 전담 기관을 창설하고 현실적인 로드맵 구축 및 운영에 들어가야 한다.

- 올림픽이 개최되기 이전인 지금부터 가칭 ‘평창올림픽 사후시설 관리 위원회’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야 할 것임¹²⁾
 - 이러한 사후 관리 주체의 운영 목적은 ① 계획 대비 비용 증가 요인 억제, ② 사후 활용 가능성 점검, ③ 시설 용도 전환에 대한 B/C 평가 등 철저한 경제성 확보에 두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나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는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경제 또는 재정 관련 부처의 소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지금부터 고정시설 활용도를 엄밀히 평가하여 ① 철거 및 원상복구, ② 시설 축소, ③ 용도 변경, ④ 보존 등의 단계로 구분하여 시간계획표(time schedule)에 맞추어 진행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임

11)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① 대회 참가자 및 관람객을 위한 숙박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할 경우 금강산의 해금강호텔과 같은 해상 숙박 시설을 임대한다. ② 스키장은 슬로프 건설시 기존 번생하였던 수목을 특정 지역에 모아두었다가 이를 이용하여 즉시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③ 루지/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장은 대회 이후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장으로 사용할 경우 중앙정부나 대한체육회가 운영 부담 주체가 된다. 등이 있음.

12) 동계올림픽 개최 이후 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모범 사례로 1994년 제17회 릴레함메르(노르웨이) 대회가 자주 언급됨. 동 대회는 올림픽조직위원회와 별도로 대회 개최 이전에 “올림픽 이후 활용 위원회(EBUK - A Post-Olympic Use Committee)를 설립하고 운영에 들어갔으며 경기장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였음.

- 특히, 사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외적인 논리를 배제하고 구체성, 경제성, 현실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 져야 할 것임
 - 해당 지역 주민의 근린 문화·체육 시설로 전용할 경우 미래 예상되는 지역 주민의 인구 규모, 소득 수준, 연령대 분포, 여가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시설로 축소해야 할 것임
 - 또한 비인기 종목 운동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유지가 필요할 경우 유지비용 부담의 규모와 주체(체육단체, 중앙정부, 지자체 등)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넷째, **(관광객 유입 극대화)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상품개발 등을 통해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써의 인지도 상승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인 지금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이미 우리나라의 동계시즌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나 강원도를 방문하는 중화권의 스키어 관광객이 동계올림픽이 확정(2011년 7월)된 이후 급증하고 있음¹³⁾
-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광 자원 신설 및 발굴, 동계올림픽 연계 상품의 개발, 관광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강원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시켜야 할 것임
 - 동계올림픽 개최로 높아진 인지도가 디즈니랜드와 같은 세계적인 테마파크의 유치, 금강산 및 DMZ 개발, 해양 레저 관광 시설 확충 등과 결합하여 관광객 유입의 극대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 한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조기 실행을 통한 강원도내 교통망의 정비, 민자 유치를 통한 낙후 숙박시설의 개선 등을 통해 관광 인프라의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13) 【부록 3】 『최근 국내 동계 외국인 관광객 추이』 를 참조.

【부록 1】역대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

< 역대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 및 참가국수(참가자수) >

회차	개최연도	개최도시(개최국가)	개최기간	참가국(국)	참가자수(명)
1	1924	샤모니(프랑스)	1.25 ~ 2.5	16	258
2	1928	생모리츠(스위스)	2.11 ~ 2.19	25	464
3	1932	레이크플레시드(미국)	2.4 ~ 2.15	17	252
4	1936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독일)	2.6 ~ 2.16	28	668
5	1948	생모리츠(스위스)	1.30 ~ 2.8	28	669
6	1952	오슬로(노르웨이)	2.14 ~ 2.25	30	694
7	1956	코르티나담페초(이탈리아)	1.26 ~ 2.5	30	820
8	1960	스퀘벨리(미국)	2.18 ~ 2.28	30	665
9	1964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1.29 ~ 2.9	36	1,091
10	1968	그레노블(프랑스)	2.6 ~ 2.18	37	1,158
11	1972	삿쵸(일본)	2.3 ~ 2.13	35	1,006
12	1976	인스부르크(오스트리아)	2.4 ~ 2.15	37	1,123
13	1980	레이크플레시드(미국)	2.13 ~ 2.24	37	1,072
14	1984	사라예보(유고슬라비아)	2.8 ~ 2.19	49	1,274
15	1988	캘거리(캐나다)	2.13 ~ 2.28	57	1,423
16	1992	알베르빌(프랑스)	2.8 ~ 2.23	64	1,801
17	1994	릴레함메르(노르웨이)	2.12 ~ 2.27	67	1,739
18	1998	나가노(일본)	2.7 ~ 2.22	72	2,177
19	2002	솔트레이크시티(미국)	2.8 ~ 2.24	77	2,399
20	2006	토리노(이탈리아)	2.10 ~ 2.26	80	2,508
21	2010	밴쿠버(캐나다)	2.12 ~ 2.28	82	2,566
22	2014	소치(러시아)	2.7 ~ 2.23	88	2,800
23	2018	평창(대한민국)	2.9 ~ 2.25	—	—

자료 :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소치올림픽조직위원회.

주 : 우리나라의 최초 동계올림픽 참가대회는 제5회 스위스 생모리츠 대회(1948년)이며 제6회 노르웨이 오슬로(1952년) 대회는 불참하였으며 이후 제7회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1956년) 이후 계속 참가중.

【부록 2】 올림픽대회 예산에 관한 연구

○ 최근 올림픽대회의 예산안과 실제 지출 비용을 비교

- 올림픽조직위원회 대회운영비용과 非-OGCG예산 중 대회관련사업비 지출을 포함하여 예산안과 최종지출을 비교
 - 각국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제출한 피드 파일(Bid file)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안과 동계올림픽대회 이후에 집계된 실제 사용 금액을 비교
 - 비용에는 올림픽조직위원회의 대회운영비용과 非-OGCG 비용 중 인프라사업비를 제외한 대회관련사업비만 포함
- 비교 결과에 따르면 예산안 대비 최종지출의 초과율은 평균 61.8%로 나타남
 - 최근 개최된 동계올림픽의 예산안 대비 최종지출의 초과율은 평균 61.8%인 것으로 나타남
 - 예산안 대비 가장 많은 초과지출은 이탈리아의 토리노동계올림픽이, 가장 적은 초과지출은 밴쿠버올림픽이었음
 - Flyvbjerg and Stewart(2012)의 분석에서 1960년 이후 모든 동계올림픽 예산안과 최종 실제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¹⁴⁾

< 최근 올림픽대회의 예산안 대비 최종지출 초과율 >

(%)

	개최국(연도)	예산안 대비 초과율
밴쿠버	캐나다(2010)	36.0
토리노	이탈리아(2006)	113.0
솔트레이크시티	미국(2002)	40.0
나가노	일본(1998)	58.0
	4개국 평균	61.8

자료 : Flyvbjerg and Stewart(2012), Olympic Proportions: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Olympics 1960-2012, Saï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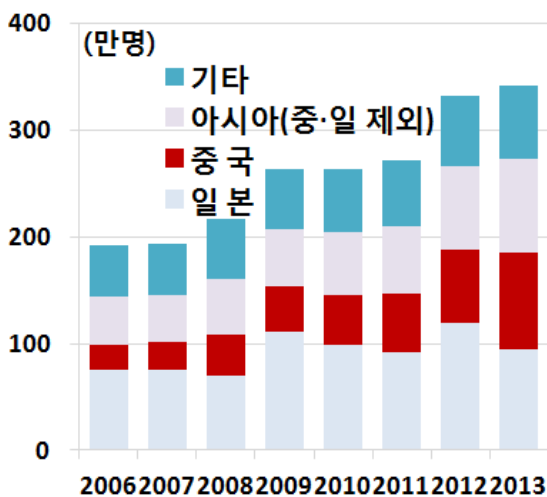
14)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기 위해 Wilcoxon의 Signed rank test를 사용함.

【부록 3】 최근 국내 동계 외국인 관광객 추이

- 우리나라의 동계시즌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동계올림픽이 확정(2011년 7월)된 이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나타냄
 - 우리나라의 동계시즌(전년도 12월~당해연도 3월)의 외국인 입국자수는 2006년 192만명에서 2013년 341만명으로 증가함
 - 같은 기간 중국인 입국자수는 24만명에서 92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중국인 입국자수 / 전체외국인입국자수 비중도 같은 기간 12%에서 27%로 증가함
 - 또한 2013년 동계시즌 기준으로 중화권 및 동남아시아인 입국자수는 약 150만명으로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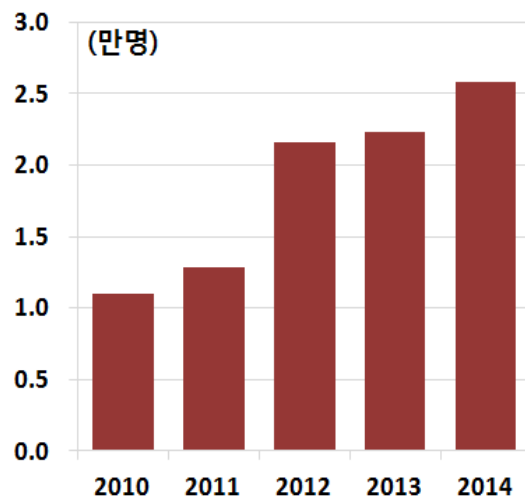
- 특히, 강원도를 방문하는 중화권의 스키어 관광객도 동계올림픽이 확정(2011년 7월)된 이후 급증하고 있음
 - 중화권(중국·홍콩·대만) 춘절(春節) 연휴기간중 강원도 내 14개 리조트의 중화권 관광객의 객실예약 추세를 보면,
 -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확정 이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1만명 초반대에 그쳤으나 2012년 이후에는 2만명대로 급증하는 모습임

<겨울시즌(12~3월) 외국인입국자수>



자료 : 한국관광공사 통계를 이용한 계산.
 주 : 해당 기간은 Y-1연도 12월~Y연도 3월.

<춘절연휴기간 중화권 외국인의 강원도 스키관광객수>



자료 : 강원도.
 주 : 춘절 연휴기간중 도내 주요 14개 리조트 숙박 예약 인원 기준.

【참고문헌】

- 1) 도키 히로시, “스포츠와 지역진흥: 나가노 동계올림픽의 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발표회 및 제 13회 한일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2004.
- 2) 이원기, “올림픽 배후시설 사후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018 평창동계올림픽 사례를 중심으로”, mimeo,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3.
- 3) 한길수와 김상우, “국제스포츠행사 지원사업 평가”, 대한민국 국회, 2012.
- 4) 현대경제연구원,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의 경제적 효과”, 『현안과 과제』, 2011.
- 5) Chris Choi,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의 유산 사후 시설관리 전략”, 한국관광정책, No.48, 2012.
- 6) Agha et al, Considering legacy as a multi-dimensional construct:: The legacy of the Olympic Games, Sport Management Review, Vol.15, 2012
- 7) Banmossy and Stephens, “Utah Image and Awareness: The Post-Olympics European Study”, working papers, 2003.
- 8) Bondonio and Campaniello, “Torino 2006: An Organisational and Economic Overveiw”, OEMERO working paper n.1, 2006.
- 9) Chappelet, “From Lake Placid to Salt Lake City: The Challenging Growth of the Olympic Winter Games Since 1980”,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 Vol.2(3), 2002.
- 10) Flyvbjerg and Stewart, “Olympic Proportions: Cost and Cost Overrun at the Olympics 1960-2012”, Saïd Business School working papers, 2012.
- 11) IOC, Olympic Games: Legacies and Impacts, 2013.
- 12) _____, Factsheet the Olympic Winter Games, 2013.
- 13) _____, Report of the IOC 2014 Evaluation Commission, 2014.
- 14) _____, Report of the IOC 2018 Evaluation Commission, 2018.
- 15) Pilipenko, The Sochi 2014 Winter Olympics - the cost-benefit analysis and

- ways to improve the project efficiency, Pan-European Institute, 2013
- 16) PWC, Global Summary of the Impact of the 2010 Olympic and Pralympic Winter Games on British Columbia and Canada 2003 to 2010, 2011.
- 17) Ralston et al, “What are the Economic Impacts on a Nation Hosing the Olympics“, USSR working paper, 2008.
- 18) Zimbalist, Andrew, “Is It Worth It? Hosting the Olympic Games and Other Mega Sporting Events is an Honor Many Countries Aspire to - but Why?“, Finance and Development, 2010.
- 19) 長野經濟研究所, 長野オリンピックがもたらしたもの: その經濟効果と地域構造の變化, 1999 **HRI**

오준범 연구원(2072-6247, jbdevil@hri.co.kr)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백다미 선임연구원 (2072-6239, dm100@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3.2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0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7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13일	2월 20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73	2.75	0.02%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51	102.34	-0.17¥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594	1.3734	0.0140\$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028	16,133	105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535	14,449	-86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4	2.86	0.02%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66.4	1,072.2	5.8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27.0	1,930.6	3.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2월 13일	2월 20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100.30	102.99	2.69\$
	Dubai	107.99	100.38	107.88	104.81	106.52	1.71\$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93.21	301.92	8.71\$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6	1.5	2.0	1.9	3.6	2.8	3.8
	민간소비 (%)	2.4	1.2	2.2	1.7	1.6	2.1	1.9	2.7
	건설투자 (%)	-4.7	-1.9	-2.4	-2.2	5.2	8.3	6.9	2.5
	설비투자 (%)	3.6	2.3	-6.1	-1.9	-8.2	5.7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61	163	317	481	298	410	707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1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